

## 마을형성 초기에 입촌 기념으로 심은 팽나무



**지정번호** 김해-12-07-10

**지정년도** 2007

**관리기관** 김해

**수령** 410년

**수고** 14m

**흉고둘레** 4.3m



경남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581-3

35° 20' 38.40" N

128° 49' 13.43" E

한림면 금곡리 본금곡마을 입구의 나무 군락(집단적이지 않음)은 한여름의 그 울창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쉽게 잊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금곡마을은 가야시대 야철장이 있었다고 하여 쇠실이라 부른다. 본금곡마을은 광주 노씨의 400년 세거지이다. 마을 이름의 뜻은 ‘금곡리의 중심’이다. 광주 노씨 문중이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은 1600년대이다. 마을 입구의 나무 군락은 처음 이곳에 들어온 선조들이 입촌을 기념하여 여러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 심은 나무는 상수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회화나무 등이다. 지금은 여러 나무가 뺏뺏한 숲을 이루지 않고 있다. 나무나이가 400년 이상 된다는 이야기이다. 시골 마을의 이정표처럼 서 있는 보호수(김해-12-07-10) 팽나무는 평지의 길가 옆에 위치하고 있다. 팽나무는 나무나이가 41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 4.3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60c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져 뻗어 있다. 하나의 가지 줄기는 45도 정도 기울기로 비스듬히 자라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기울기 때문에 내습했던 태풍의 피해로부터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본금곡마을은 대눌 노상익(1849~1941)과 아우인 소눌 노상직(1855~1931) 형제 학자를 배출한 마을로도 유명하다. 대눌과 소눌 형제는 김해부사였던 성재 허전(1797~1886) 문하에서 수학했다. 대눌은 지조로, 소눌은 학문으로 이름이 높다. 마을 입구 바로 전에 소눌의 묘비가 있다. 마을 뒤에는 대눌이 망국의 한을 품은 채 말년을 보낸 ‘천산재’의 흔적과 대눌의 묘역이 있는 노씨 문중의 선산이 있다. 대눌은 천산재를 짓고, 천산재로 오르는 길에 도랑을 깊이 파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두문불출했다.

